



임실군이 5월 놀거리와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 축제의 장을 선사한다.

# '가정의달, 임신에서 즐기세요'

### 군, 오수의견공원 · 치즈테마파크서 어린이날 프로그램 마련

임실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놀거리와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 축제의 장을 선사한다.

특히 군은 5월 5일 어린이날과 8일 어버이 날을 전후해 지역민은 물론 타지역 관광객까지 임실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 몰이에 나선다.

군은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주간 내내 오수의견공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5일 어린이날에는 오수청년회의소와 함께 오수의견공원에서 제9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제25회 임실군 어린이 민속 콘서트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에는 식전행사로 민속놀이 체험 행사와 국악과 성악이 어우러지는 사과나무공연이 마련되고, 본 행사는 1부 어린이날 기념식과 2부 어린이 민속 콘서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2부 행사는 어린이들과 어른이 하나로 즐길 수 있는 댄스탐공연과 추억의 보물찾기, 전통무예공연, 비보이, 저글링공연, 태권도시범공연, 오늘은 내가 최고의 댄스왕 등 가족놀이마당,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등 다채롭다.

또한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원봉사 부스를 별도로 운영해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네일아트, 팝콘, 미술놀이, 친환경체험, 비눗방울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구성돼 재미를 더해준다.

대표관광지도 명성이 자자한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도 풍성한 행사들을 마련, 가족단위 전국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는 2017년 여행주간과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봄나들이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광객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야외 식

체험 및 공연, 푸드 체험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5월 황금연휴 기간을 맞아 이벤트로는 새싹엽서와 뱃지만들기, 문패만들기, 연만들기, 부채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치즈를 활용한 조각파자, 고구마·불고기 치즈롤구이, 햄버거, 슬러시, 솜사탕 등의 먹거리를 마련했다.

어린이 날에는 모든 어린이에게 솜사탕을 무료로 제공하고, 음악분수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비트박스, 미술쇼, 풍선쇼, 국악동요, 국악클라보 등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을 선사한다.

지난 4월부터 새롭게 문을 연 4D 영화관은 여행주간 기간인 5월 14일 까지 방문 이용객에 대하여는 이용료 50%의 파격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야외 식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어린이날 선물 폭탄 '풍성'

### 5일 일품공원 야외무대에서 전시·체험프로그램 다채

순창군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역대급 어린이날 콘서트 선물꾸러미를 준비해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군은 '오늘은 좋은날! 우리를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5일 오전 10시부터 일품공원 야외무대에서 31개의 다양한 공연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순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 119안전센터, 전북스마트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할 계획이다.

김승준의 미술쇼, 최경식의 코믹 마인버블쇼, 트랜스폼러 공연 등 다양한 특별공연과 축하공연은 아이들의 눈을 기쁘게 한다. 카네이션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가족화분만들기, 위기탈출 넘버 원 등 체험 프로그

램만 10여개가 넘는다. 샌드위치만들기, 삼각김밥만들기, 솜사탕, 아이스크림 만들기, 순창고추장 떡볶이 만들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 체험도 가득 준비돼 있다. 또 대형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3종, 퍼니버블 놀이, 전래놀이 등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어놀 수 있는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체험하는 가족동요 부르기 대회와 미니 체육대회도 눈길을 끄는 참여 행사로 주목 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화장품 컨소시엄, 홍식품 연구개발 대상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공모과제 지원기관 선정 발표 결과 남원 소재 ㈜하이슬(대표 박이경)이 주관하고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사장 이원주 남원시장)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화장품 컨소시엄이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지원 대상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농산업 육성 R&D 프로젝트' 지원대상 선정으로 해당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5년간 총 14억원의 규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남원시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 등 총 20억6천7백만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해 남원의 허브산업 기반을 활용한 뷰티산업 소재와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남원소재 화장품 기업 ㈜하이슬과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외에도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화장품 원료 전문 기업인 ㈜더가든오브브레주원솔루션, 전북농업기술원 허브시험장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리산권 자생식물 및 허브를 이용한 기능성 특화 소재 발굴과 이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와 제품 개발, 시장테스트 등을 계획하고 있어 천연물 유래 화장품원료소재에 대한 성과가 기대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소식통

## 생생카드 신청하면 10만원 지원

순창군은 전북도 삼라농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에 대한 3차 추가 모집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 문화 및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군은 806명의 여성농업인에게 8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2차에 걸쳐 신청자 900여명에 대해 생생카드를 발급중이며, 6월말까지 추가로 3차 신청을 읍면을 통해 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선진 한우사업 육성 7300만원 확보

남원시는 축산업의 글로벌 무한 경쟁체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진 한우사업 육성을 위해 올해 9억 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가족육우 최적화와 축산현장의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농후사료 자동 급이기, 음용수 확보를 위한 중형관정, 수태율 향상에 필요한 발정탐지기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증강제 등 지원으로 건강한 한우생산으로 축산식품의 안전성 제고 및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2017년 4월말 현재 고능력 압축곡조성 및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등 11개사업을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며, 현재 남원시에서는 887농가에서 3만28두의 한우를 사육중에 있으며 농업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원주 남원시장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와 가족전염병 근절 없이 축산업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사육관리개선 및 철저한 방역을 통해 고품질축산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축산물 개방 확대에 인한 농가 어려움은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통해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착수

순창군이 5월부터 서민층 340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히 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고무호스를 무료로 급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폭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8천여 만원이 투자된다.

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공동 추진해 효율성을 높인다.

또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각 가정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이장들의 협조를 받아 읍면 산업계에서 지원대상가구를 선정한 공정성도 높였다.

최근에는 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도 진행해 사업추진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군은 5월부터 참여 시공업체가 선정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주거 환경의 LPG고무호스는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돼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함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ijmaeil.com